

추석, 가족이 함께 드리는 예배

인도: 가족 중에서 교회 직분자 또는 웃어른

목 상 기 도 인 도 자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며 한 해 동안 우리 가족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다같이 묵상기도 하겠습니다.

찬 송 301장(통460) 다 같 이

1. 지금까지 지내 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 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피 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2.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3. 주님 다시 뵈을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기 도 말 은 이

진리와 소망의 하나님, 올 한해에는 오직 하나님의 뜻과 은혜 속에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셔서 순종으로 기쁨 누리기를
원하오니 주의 진리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추석을 맞이하여 모인
우리 가족이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 협력하고 아끼고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께
서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족의 삶, 하나님이 호ощ하게 하시며 걸어가게도
하시오니 이제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 경 봉 독 요한복음 14:6 인 도 자

6.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 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인 도 자

점점 세상은 복잡해져 갑니다. 마치 밀림의 울창한 숲속처럼 느껴집니다.
밀림에는 풀과 나무가 우거져 사람이 다닐 만한 길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듯이 우리네 세상도 주께로 나아가는 길이 죄라는 숲으로 얽혀
보이지 않게 되어 버렸습니다. 오직 이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십니다. 주님이 오시면
막힌 길이 열리게 됩니다. 그 길은 소망이요 진리이신 주님이 먼저
걸으셨던 길이며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그
생명의 길입니다. 이 길로 나아가게 하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첫째,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 되십니다. 잠언 20:24에는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말씀합니다. 사람의 길은 오직 주님으로
말미암습니다. 다 좋은 길로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끝이 다르기에
우리는 올바른 길을 찾아야 합니다. 제대로 된 목적지로 인도하는 길은
오직 예수님 밖에 없습니다. 그곳에서부터 이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 친히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외에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와서
우리에게 돌아갈 길을 보여준 자가 없습니다.

둘째, 예수님은 우리의 진리 되십니다. 요한복음 16:13에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로 우리를 이끄신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성령이
예수께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뜻입니다. 진리를 따른다는 것은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은 빛과 함께 있다는
것이고 그 빛을 나누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셋째,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 되십니다. 골로새서 1:15에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라고 말씀합니다. 그의 능력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며 죄를 정결케 하며 첫 창조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는
그 자리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새 창조로 더 놀라운 인생이 되게
만드십니다.

추석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우리 가족 모두가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기쁨으로 살아가는 남은 2023년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 도 인 도 자

은혜의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은혜 주시니 감사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안에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르기를 원합니다.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따라 세상의 빛과 소금 되어 온전한 그 사랑 전하는 사랑의 편지가 되겠습니다. 생명을 더 얻고 더 풍성하게 하시는 주의 은총 아래에서 우리도 다른 이를 더 존귀하게 여기고 그들의 생명도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 아래에 참 행복을 누리실 수 있게 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풍성한 하나님의 은총이 올 한해에 가득 넘치기를 원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 송 559장(통305)..... 다 같 이

1. 사철에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2.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설움도 같이하니 한 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3.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 후렴.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 되고 즐거운 하루 하루

주 기 도 문 인 도 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2023년 가족과 함께 드리는

추석

가정예배 순서지

